

신행수첩

여성불자들 정진 다짐 삼일선원 지장불 점안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
다움은 역시 인고의 세월을 지
내온 연륜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15년을 이렇듯 한결같이 불
법포교와 신행활동을 해온 단
하재단부설 보문회(회장 박대
도심)가 지장사상을 보다 적극
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장회
를 결성한 것은 지난 90년 9
월. 이 취지에 따라 지장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삼일선원
법당에 새로이 지장불을 모시
고 불보살을 거행한다.

이날 불보살에는 석주스님
(철보사 조실)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지장회 신도 70여명이
참석한다.

여성불자들뿐만 아니라 구
분회에는 매주 금요일 정기법
회는 물론 한달에 한번 사찰순
례를 갖고 불법심체에 빠져든
다.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
해 불우이웃을 돕는 등 보살행
을 펼치고 있는 지장회는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불법의 진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주
지 현장)는 연말연시를 맞이하
여 재가불자들을 위한 6박7일
출가생활 수련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95년1월1일까
지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염불,
선제초, 사경, 윤력등 수련의
장을 마련한다. 항상 수행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더
할 나위없는 삶이겠지만 그렇
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단 1
주일간 만이라도 수행자의 삶
을 체험해보자.
(0694)52-1755

'우리는 포교사' 금강경·불교의식 강의

불자들은 누구든 포교사이
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웃의 경조사에 참
석해 불교의식을 집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포교는 없을
것이다. 전문포교사가 아니
어도 불자라면 이웃에 어떻게
살의 진리를 전할까라는 고민을
풀어주는 배움터가 있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이 개설한 의식교육 참선교육
대승경전 연구모임이 그것이다.

웃음과 선율속에 한해를 돌아본다

31일 조계사 중·고학생회 송년 예술잔치

한해를 마무리할 때다. 조
용한 곳에서 한해를 뒤돌아
보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
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
을 것이다. 그렇지만 함께 어
울렀던 동기, 선배들과 모
여 한해의 뉘우침과 다짐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조계사
중·고학생회가 오는 31일
오후4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제32회 '송년예술제'를 개
최한다. 이번 송년예술제는
지도교사나 선배들의 도움없
이 학생회원들 스스로가 준비
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주
제도 "다시 태어나는 우리들
의 다짐"으로 정했다.

대본을 직접 작성해 자신
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과
학교생활의 회로에타를 담은
단막극이 준비됐다. 길어가는
계절마저도 잊게 해줄 시낭
송과 피아노, 플루트 연주가 고
운 선율을 뽐낼것이다. 중창
도 있고 바라밀춤도 있다. 또
실장교를 포함한 사물연주도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 학생의 활동과 울
해 교계의 이모저모를 재미
있게 엮은 일련극은 많은
웃음과 함께 교계를 바라보
는 자신들의 견해를 보여주
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 회원
들은 자신들의 일년을 되돌
아보며 더욱 희망찬 내일의
문을 열게 된다.
부모님도 모시고 친구, 동
문선배들도 모신다. 학업에
애써 많은 연습은 못했지만
건강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
여주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쁠것이다. 온가족과 함께
우리의 동창들이 펼치는 송
년잔치에 참여해 보는것도
뜻깊은 한해의 마지막날을
보내는 것이 될 듯하다.
(02)734-8179

초·중·고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겨울산사불교학
교는 레크레이션, 공동놀이 등
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가자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 청소년윤리등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예절교육과 극기훈련도 있고
참선과 철야정진을 통해 자신
을 가다듬는 시간도 있다.
물컾물컾기 쉬운 겨울, 어깨
를 펴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 힘껏 겨울을
안아보자.
(032)577-5123

백내장·사시환자에 새삼 먼눈 밝히는 광명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생로병
사의 아픔이 있다. 그러나 따
뜻한 마음이 모인다면 고통도
줄어들 수 있다. 앞을 보지 못
하는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
자 진주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
았다. (사)참교연 진주지부 부
설 먼눈 밝히는 광명회(총재
관용스님)다.

지난 10월1일 인간방생의 차
원에서 모임을 결성, 지금까지
백내장·사시환자 7명에게 새
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짧은 기간에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들의 힘이 모였기 때문
이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앞을 보지못
하는 이웃이 많다. 비록작은
성의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더
많은 이들이 광명을 찾을 것
이다.

광명회가 뜻을 같이 하는 이
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0591)751-3384

무의탁 노인위안 진치 김음종합사회복지관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사
랑으로 마련하는 따뜻한 만찬
의 자리는 인정의 훈향을 더
욱 느끼게 한다.

김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
원)은 매년 실시해 오던 지역
주민과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다.

올해는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진승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욱 즐겁고 유쾌한 감사와 위
안의 밤이 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후 5시만 길을
복지관 우정홀에서 열리는 이
번 '무의탁 노인및 지역주민
감사의 밤'은 불교방송과 불자
가수회의 후원으로 진승남부
부, 김승국, 남궁옥분, 장미화
씨등의 인기가수들을 초청했
다.
(02)985-0161-4



심재열
〈원효사상 연구소장〉

행을 기원했다. 아내는 1주일만에 어떤 현몽
을 얻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3일후 기도중 꿈에 본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만족한 조건으로 문방구점을 인수
해 줌으로 가파를 본 셈이었다. 그런데 나는
1주일을 더 정진했어도 아무 영험이 없어 전
생업장이 투입고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생
각했다. 그러나 기도의 영험은 영롱하게 나타
났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출판사 사장
꿈에 내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부탁하오." 하며 영롱한 자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사장은 그로부
터 전과 달리 나의 제안을 들어
주었고 도서사의 지원도 있어 큰
스님의 (금강경해설집)을 비롯 7
권의 불사를 간행 할 수 있었다.



19년전 (육조단경)본문만을 번
역하고 있을 때였다. 출판사측으
로부터 해설을 급히 추가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나중에 안일
이지만, 어느 재판회장의 49재를
마치는 날 유족들의 발원으로 백
일재에 (육조단경)을 간행 시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일이 급박
했던 것이다.

전쟁 참상 보고 귀의...채식만 40년

했고, 아침 저녁 동족살상의 뉴스 보도는 나
를 울고 또 울게 했다.

이후부터 나는 이 모든 상흔은 종교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절, 교회, 유교,
민족종교 등에 관심을 최대한 쏟았다. 어느날
식탁에 오른 생선을 보고는 "이것은 송장이
다. 먹을 것이 아니다"하는 감상을 느껴 먹지
못한 이래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범어사로
동산스님을 친견하고는 불교에 귀의했다.

그 몇해 뒤 동산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
고는 숲, 담배, 육식, 5신체를 일거에 끊어 지
금까지 40년동안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수행이란 것은 없지만 신령에 의한 극기의
의단이기 하고, '48경계'의 하나를 지니는 것
이긴 하다.

정화분사이후로 신앙적으로는 청담스님을,
교화적으로는 이종익박사를 따랐는데, 청담스
님 금강경 강좌를 3년 주관한 인연으로 그 어
른이 입적하신 뒤 스님의 (금강경 설법집)을
간행하고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대적이
되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내
가 해야겠다는 의욕은 수미산같이 컸다.

(보조보어)해설을 집필하고 있던 그 무렵
의 어느날, 아씨의 요청으로 강화 보문사로
기도를 떠났다. 아씨는 자신의 문방구 처분을
발원했고 나는 청담스님 (금강경해설집) 간

는 더욱 긴장하고 정신집중에 몰두했다가 일
단 해설방향이 정해지면 마음이 다소 풀어져
젊은 날의 비몽사몽의 상태에 들어 집필한
적도 종종 있었다.

어느날 새벽, 쓰고 있던 딱딱한 펜 끝이 돌
연 부드러워짐을 느꼈다. 펜을 눌러보았지만
붓처럼 칩 꾸부러졌으므로 이상한 생각이 들
어 글을 쓰는체로 펜 끝을 보니 하얀 솜이
피어 있는 듯이 보였다.

펜을 들어 확인하면 뿔 테지만, 시간이 급
했고 망상스러운 일로 여겨져 쓰는데만 열중
했다. 밝은날 원고를 읽어보면 맑은 정신으로
쓴 것과 다름이 없어 불가사의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때백이 글을 쓰다 붓 끝에서 솜이 피
어남(筆上生花)을 보고나서 중국제일의 시인
이 되었다는 고사(古事)가 있지만 나같은 문
필이 그럴리는 없으나 역시 가파방편의 힘이
리라 생각했다.

요즈음은 금생의 회향법사로 원효선사의
생애·사상과 보조국사의 법통규명에 대한
집필, 간행, 후진양성을 발원하고 있으나, 법
원(法緣)을 만나기 어려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나의 기원이 부족한 탓이라 믿고, 뒤늦게
나마 수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는 삶을
살고자 발원한다.



◇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은 동산불교대학이 최근 금강경 강좌를 개설했다.

수행자되어 맞는 새해 대원사 출가 수련회

산새소리 가득한 산사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를 맞는 것은 어떨까.
자칫 무질서하고 혼란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에 산사를 찾아
부처님의 숭결을 느껴 볼수 있
는 것은 불자들만의 특권이다.

"지난날을 참회한다" 전주교도소 송년법회

한때의 잘못을 참회하며 새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
소자들이다. 이들 재소자들이
가운데 불자들이 모여 한해를 결
산하는 법회가 마련된다.
전주교도소 불교 교화위원회
(위원장 남파스님)가 22일 오후
1시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동행하는 송년대법회다.
이날 송년법회에서는 불자재
소자들이 서로가 도반이 되어
공부한것을 한자리에서 펼쳐

산사서 배우는 예절·극기 참교연, 불교학교개설

청명된 겨울산사는 파란 호
수에 비친 어머니 손같은 아름
다움이 깃들여 있다.
넉은 도량, 사철 푸른 소나
무, 찬따란 계곡에서 흐르는
명경지수, 그 속에서 호흡한다
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정
화되지 않을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
회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
천지부(지부장 김선일)가 주관
하는 겨울 산사불교학교가 오
는 27일 화성신촌사에서 청소
년들을 초대한다.

생활속의 불교 10

"추운 겨울 보내고 봄을 맞는 소식"

자기가 강도 짓을 하고 불려 갔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제가 했으므로 제가 치러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잘 되는 것,
안되는 것, 기쁘고 슬픈 일, 잘나고 못나 것,
우환과 행복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모두 제 말, 제 뜻, 제 행동으로 지은 결과이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빚대어 탄식할 것인가.

사람들은 인과 응보에 얽힌 업을
사람심으로 풀려고 한다.
아니면 남의 탓, 운명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런 짓은 얼음 덩어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녹아내리는 듯이 보이지만 이내 부은 물까지 덧 얼어
얼음덩이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남의 탓을 하고 팔자 운명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짚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잠재 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업의 거미줄,
수억 겁을 두고 쌓여온 업의 덩치들,
그것은 마음으로 지은 산물이니
마음으로 녹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한 생각 크게 돌이켜 나온 자리에
뒤뚱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러 놓는 그곳에 업이 녹는 도리가 있다.
평광 언 얼음 덩어리가 봄 아지랑이에
스르르 풀어져 내리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맑은 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꼭지에서
시뻘건 녹물·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보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송수관이 녹슬거나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원PE 파이프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엔 동원PE 파이프가 적격입니다.

동원PE 파이프의 특성

위생성 무독·무취하므로 물의 변질이 절대로 없어 식 수·온천수 배관에 최적이다.	내한성 영하 80℃까지 동상변화가 없어 혹한기에도 동파의 영향이 전혀 없다.
내식성 부식·전석이 전혀 없어 관성이 생가지 않고 녹물 의 염려가 없다. 비닷물 배관에도 적격이다.	유연성 신도가 500% 이상으로 매설 후 지반변동이 심해 도 파열·균열현상이 없고 따로 일부 이음관을 쓸 필요가 없다.
내약품성 산·알칼리·염분에도 침식되지 않으며 해조류나 박테리아 등 세균류가 번식하지 못한다. 솔벤트 등 에도 매우 강하다.	기타 관 내면이 매끄러워 흐름이 좋고 음착이 완벽해 절 단 미진 상태와 같은 이음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찰 손실, 누수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경제성 자재비가 저렴하고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이며 시공 이 간편해 다른 지체보다 매우 경제적이다.	

동원PE 파이프의 용도

송배수관/급수관/소화전/LNG·LPG 등 가스배관/지중선 보호관/
육내 전선배관/해수인입배출관/농업용수관/간석지 배관/스프링물러 용/
골프장 송수관/유류·화학약품 송수관/생태 공기송출 덕트/
토사 등 수송관/기타

동원엔지니어링 파이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0-1 서일빌딩 3층
TEL. 02-588-3476/8-4546/7 FAX. 02-588-9470
공장 전북 익산군 신기면 기산리 301-1
TEL. 0653-888-9035/6 FAX. 0653-888-8337

동원엔지니어링 (株)東原프라스틱